



대학주보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입학주간 선포식에서 학생명예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태영 기자)

‘경희의 이름으로’, 환영해 새내기! 〈신입생 입학주간 선포식〉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주간 선포식 〈경희의 이름으로〉가 개최됐다.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포식은 ▲응원단 축하공연 ▲학생명예선언 낭독 ▲단과대학 학생대표자 및 총학생회 소개 ▲입학주간 선포 ▲동아리, 태권도 시범단 등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송출을 위한 스튜디오는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 마련됐다.

이번 입학주간 선포식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학생회 주관 비대면 입학 행사이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 중 처음으로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진행된 행사이기도 하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

어학 2015)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문화를 겪으며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졌던 전통과 문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이승(의학 1974)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4년 또는 6년간 펼쳐질 대학생활은 신입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꿈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양 캠퍼스 총학은 총학의 운영 기조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남우석(철학 2018) 회장은 “총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참여’”라며 “총학은 학사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부회장은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교 사이에 큰 벽이 있었다”며 “총학은 그 벽을 넘어 학생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학생회는 신입생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은 신입생 환영키트를 준비했다. 서울캠 총학 남우석(철학 2018) 회장은 “머그컵, 엽서 등을 담은 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이어 “그 외의 신입생 환영 사업은 학과나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기층단위 학생자치기구의 활성화와 신입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환영키트는 3월 초 신입생들의 자택으로 배송된다.

국제캠 총학도 신입생 환영키트를 준비했다. 신입생 환영키트에는 대학 생활 정보를 담은 ‘경희백과’와 볼펜, 배지를 비롯한 기념품이 담겨있다. 전 회장은 “학교에 직

접 와야만 알 수 있었던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문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경희백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환영키트는 신입생들의 자택으로 배송되거나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실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배부된다.

사령

면	〈편집장〉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서울뉴스팀장〉 김창호(미디어학 2019) 〈기획팀장〉 김수혁(철학 2016) 〈미디어팀장〉 박혜림(원예생명공학 2017)
명	〈편집장〉 김가연(국어국문학 2019) 〈서울뉴스팀장〉 이현정(국어국문학 2019) 〈국제뉴스팀장〉 이태영(시각디자인학 2019) 〈기획팀장〉 허지영(한의학 2019)

모니터에 갇혀 버린 신입생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21학번이 입학했다. 입학식도, 새내기 배움터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활은 시작됐다. 선배와 후배가 만나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된 지 오래다. 일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이들 행사는 지원자를 받아 진행됐다. 학번 간 교류는 자연스럽게 줄었다. 생애 한 번뿐인 입학식도 평화의 전당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21학번들은 경희대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 지 잘 모른다. 동기, 선배들의 연락처도 모른다. 분명 우리학교 학생임에도, 그들은 캠퍼스가 낯설다.

비대면 새내기 맞이 행사
“과외 때문에 놓쳤어요”

“교양과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계산하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혼자서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 한혜원(행정학 2021) 씨는 시간표 작성의 고충을 제일 먼저 토로했다. 수강신청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시간표 작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개강하면 필요한 전공서적 구매부터 시험을 치르는 방식까지 새나기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비대면 수업 체제인 지금, 이들이 도움을 찾을 길은 쉽지 않다. 원래는 신입생을 위해 마련되어 있던 ‘새내기 맞이 행사’가 이런 기능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행사와 교육이 대부분 비대면 실시간으로 전환됐고, 신입생들은 공지된 시각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야만 했다.

▶6면 ‘모니터 속 새내기’로 계속